

최고가격제로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24.(월) 연합뉴스포맥스는 「상반기 휘발유 소비량 ‘역대 최대’ ... 시행 6개월차 최고가격제의 역설」 기사에서,
 -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6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,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
 - 최고가격제가 에너지 절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.
 - 또한, 5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대비 6.4% 늘어났고, 6월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량을 유지한 결과, 지난해보다 상반기 소비량이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산업부 입장 >

- ‘26년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*은 역대 최대(전년비 +1.3%)를 기록하였으나, 이는 최고가격제와 무관한 ’26년 1~2월 소비량 상승에 주로 기인했습니다.
 - * 동 기사에서 언급한 석유공사 통계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은 도매단계에서의 정유사 내수 출하물량이며, 실제 주유소 판매량과는 차이가 있음
 -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인 1~2월 소비량이 전년대비 14% 증가한 반면, 시행 이후 3~6월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대비 4% 감소하였으며,
 - 특히, ‘26.1월 소비량이 전년대비 22% 상승하며 상반기 소비량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.

- 최고가격제와 무관한 시기에 휘발유 소비량 증가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, 최고가격제로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이 ‘역대 최대’를 기록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휘발유 소비량 (석유공사 통계) >

(단위: 천배럴)

구분	1월	2월	1~2월 소계	3월	4월	5월	6월	3~6월 소계	합계
2025	6,982	7,137	14,119	8,350	8,248	7,292	7,909	31,799	45,918
2026	8,483	7,564	16,047	7,996	6,891	7,756	7,818	30,461	46,508
증감	21.5%	6.0%	13.7%	-4.2%	-16.4%	6.4%	-1.2%	-4.2%	1.3%
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양정화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만식 (044-203-5215)